

# 현대예술의 이해

20세기 / 1900년 ~

Modern Art<sup>모던아트</sup> & Post-Modern Art<sup>포스트모던 아트</sup>

Contemporary Art<sup>컨템포러리 아트</sup> \* contemporary: 현대의, 동시대의, 최신의

미술<sup>美術</sup>

현대예술은 어렵다!

현대예술은 왜 어려운 걸까?

현대예술, 정말 어려운가?

예술의 아우라

Aura



이 둘의  
차이는?

## ➤ Aura 아우라

- 사전적 의미: 영기靈氣, 신비스러운 효력 · 분위기
- 고대 희랍어: 입김, 공기, 가볍고 부드러운 바람
- 종교적 의미: 신神의 입김

=> 인간의 육체 주위를 맴도는 빛의 너울

=> 최후의 심판까지 보존하는 정기Äther; 에테르



1. 예술작품 여부
2. 예술작품의 여부를 구분하는 근거는?



레오나르도 다빈치, <모나리자>,

1503~1506, 루브르 미술관

왜 이토록 <모나리자>에  
열광하는 걸까?





➤ 예술에서의 Aura<sup>아우라</sup>

- 유일무이<sup>唯一無二</sup>, Uniqueness
- 진품<sup>眞品</sup> => 원본<sup>Originality</sup>
- 예술작품의 사물<sup>事物</sup>적 속성
- 내 앞에 존재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

=> 아우라적 권위 발휘

=> 예술에 대한 숭배적 가치

✓ 발터 벤야민<sup>Walter Benjamin, 1892~1940</sup>

: 「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」 (193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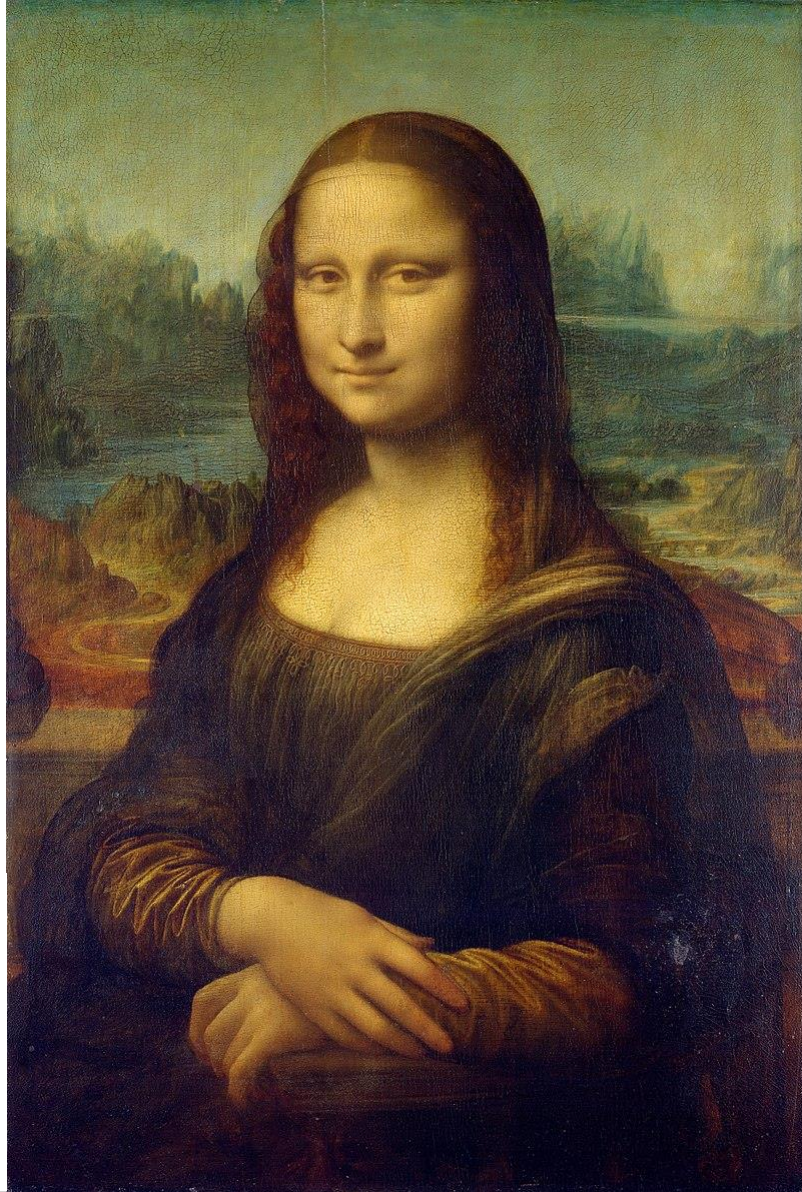
<모나리자>의 “아우라”는  
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?

레오나르도 다빈치, <모나리자>,

1503~1506, 루브르 미술관







Leonardo da Vinci  
레오나르도 다빈치,  
<Mona Lisa<sup>모나리자</sup>>,  
1503 ~ 1506



Marcel Duchamp  
마르셀 뒤샹,  
<L.H.O.O.Q.  
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>, 1919

아우라의 권위에 대한 도전

아우라의 몰락?





전시된 마르셀 뒤샹의 작품들

Sherrie Levien 셰리 레빈, →

<Fountain: After Marcel Duchamp 샘: 마르셀 뒤샹 이후>, 1991



## ➤ 셰리 레빈의 작품의 의미

- 예술의 역사성, 정통성에 대한 의문 제기
- 현대 사회에 '진품'이란 없다 => 새로운 창작은 없다
- 황금 만능주의, 물질 만능주의

# 아우라의 권위에 대한 도전

# 아우라의 재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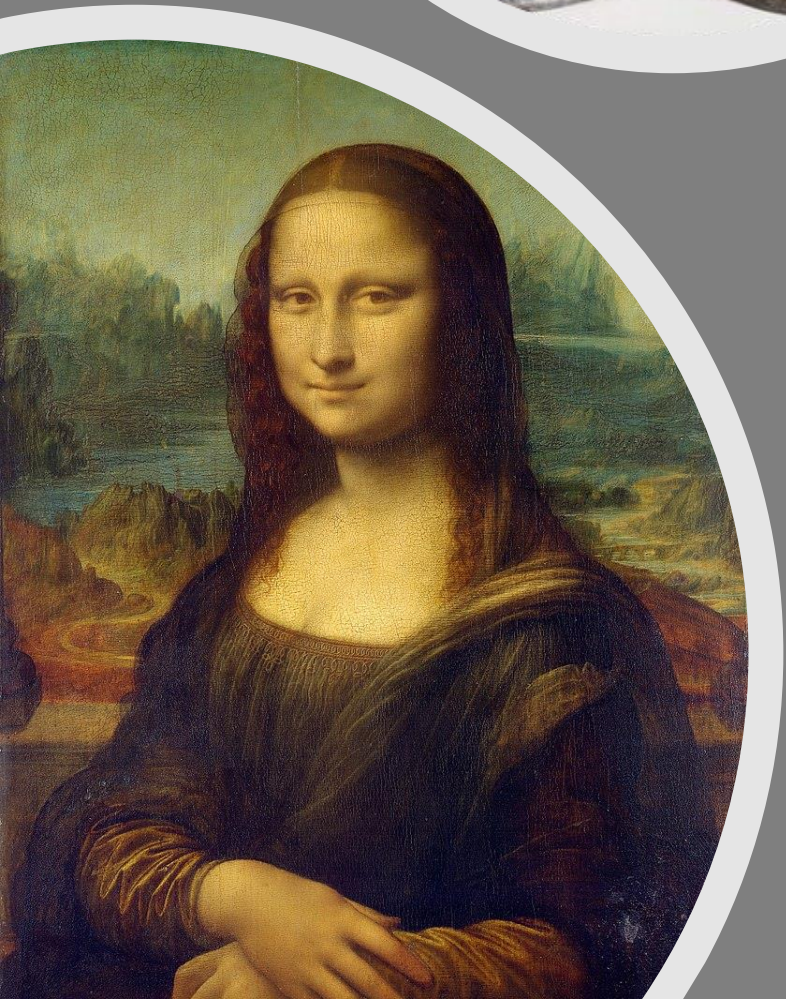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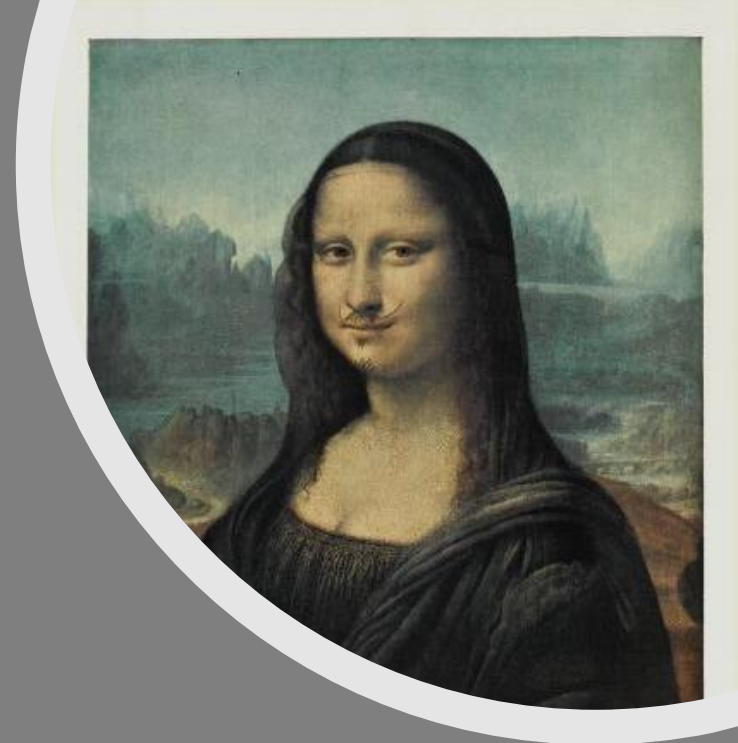


➤ Piero Manzoni 피에로 만조니,  
 <Artist's Shit 예술가의 똥>,  
 1961

- 총 90개 제작  
 => 일련의 번호를 매김
- “정량 30g. 신선하게 보존. 1961년 5월에 생산해서 캔에 담김”이라는 라벨 부착 => 당시 금속 시장에서 같은 무게의 금 시세로 거래
- 2007년에 소더비 Sotheby's 경매에서 12만 4천파운드(약 1억 9천만원)에 낙찰
- 2015년에는 54번 캔이 18만 2천 5백파운드(약 2억 8천만원)에 판매
- 2016년 8월 밀라노 경매에서는 27만 5천파운드(약 4억 2천만원)에 판매







예술에서 아우라의  
원천源泉은 과연 무엇인가?





➤ Andy Warhol 앤디 워홀,

<Brillo Boxes 브릴로 박스>, 1964

1. 이것은 무엇인가?
2. 이것은 예술작품인가?
3. 이것이 예술작품이라면,  
그 근거는? / 아니라면, 왜?
4.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?
5. 워홀, <Brillo Boxes 브릴로 박스>  
vs. 뒤샹, <Fountain 싹>



➤ <브릴로 박스> 의미

- 원본原本과 복제複製의  
경계 교란
- 고급高級과 저급低級의  
경계 붕괴
- 예술과 일상의 경계  
허물기
- “예술의 종말The End of  
Art” (by. 아서 단토  
Arthur Danto)

예술 ⇔ 비<sup>非</sup>예술

아우라의 부활





“예술의 종말”

이후의 예술

: Post-Modern Art

포스트모던 아트, (후기) 현대 예술

## ➤ “예술의 종말” 이후의 예술

-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
- 모든 것이 가능한 대신, 왜 가능한지를 증명해야 함 => 예술의 규정이 어렵다
- ‘사물事物’이 ‘예술작품’으로 성립되는 필수 조건 => 해석 Interpretation



Andy Warhol 앤디 워홀,

<Campbell's Soup 캔벨 수프>, 1968





↑ Andy Warhol 앤디 워홀,  
 <Brillo Boxes 브릴로 박스>, 1964



↑ Mike Bidlo 마이크 비들로,  
 <Not Warhol (Brillo Boxes, 1964) 워홀(브릴로 박스, 1964)이 아닌>, 1991



예술의 아우라를 원하는가?  
그렇다면 / 그렇지 않다면,  
왜?

